

CONNECT 1회차 · 55분

개념 잡기

워크스페이스 · 스레드 · 에이전트 · 도구

여는 말

- 개념 회차입니다. 다음 회차부터 실제로 만듭니다.
- 여기서 정한 워크스페이스 구분이 나중에 바꾸기 가장 번거로운 결정이라는 점을 미리 말해두세요.
- 실습 20분을 빼면 설명은 35분입니다. 네 개념에 각 5분 정도가 목표입니다.

혼자 쓰다가 팀이 되면 생기는 문제

혼자일 때

노하우
내가 잘 쓰는 법을 안다

기록
내 대화 기록

도구
내가 붙인 것

비용
내 비용

권한
내가 조심하면 됨

팀이 되면

노하우
✓ 다른 사람은 모른다

기록
✓ 서로 못 봄. 같은 질문을 각자

도구
✓ 팀원은 다시 붙여야

비용
✓ 누가 얼마나 쓰는지 모름

권한
✓ 권한 관리가 필요

Connect는 이 다섯 가지를 다룹니다 — 에이전트 · 워크스페이스 · MCP · 사용량 · 역할.

왜 필요한가

- 개인용 AI 서비스와의 차이를 여기서 명확히 하세요 — 도구 연결과 권한 관리입니다.
- 다섯 줄 중 참석자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손들어보게 하면 이후 설명이 그쪽에 붙습니다.

구성

네 가지만 알면 됩니다

01

워크스페이스

팀의 경계. 서로의 대화와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

02

스레드

일 하나 = 대화 하나. 창을 닫아도 계속 진행

03

에이전트

일을 처리하는 주체. 다섯 종류

04

도구

에이전트가 손에 쥐는 것. MCP · 내장 · 시스템

이 넷을 잡으면 나머지 화면은 대부분 짐작이 갑니다.

네 개념

- 워크스페이스를 나누는 기준은 정보 경계 → 도구 경계 → 비용 경계 순입니다.
- 시작은 적게, 필요하면 나누세요. 합치는 것보다 나누는 게 쉽습니다.
- 에이전트 다섯 종류는 3회차에서 다룹니다. 여기서는 “주체”라는 것만 잡으면 됩니다.

워크스페이스

모든 것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

- 대화 · 에이전트 · 연결한 도구 · 등록된 시스템 · 멤버와 권한 · 사용량
- 주소는 /w/<핸들> — 핸들은 만들 때 정하는 짧은 이름입니다
- 워크스페이스끼리는 서로의 대화나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
- 한 계정이 여러 워크스페이스에 속할 수 있지만 각각은 독립적입니다

“경계”가 이 개념의 전부입니다. 나머지 설정은 전부 이 경계 안쪽 이야기입니다.

경계

- 여기서 워크스페이스 전환 메뉴를 실제로 보여주면 “독립적”이 바로 이해됩니다.
- 사용량과 크레딧도 워크스페이스 단위라는 점을 미리 심어두세요 — 4회차 비용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.

워크스페이스

어떻게 나누나 — 순서가 있습니다

1

정보 경계

“이 대화를 저 사람이 봐도 되나?”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

2

도구 경계

영업은 CRM · 견적, 개발은 GitHub · 배포. 섞으면 도구가 너무 많아집니다

3

비용 경계

부서별로 비용을 나눠야 한다면 워크스페이스도 나눕니다

10명 스타트업은 1개, 50명 회사는 부서별 3~5개, 고객사 프로젝트가 많으면 고객사별 + 내부용 1개.

나누는 기준

- 너무 많이 나누면 반대 문제가 생깁니다 — 같은 도구를 여러 번 붙이고 같은 에이전트를 여러 번 만듭니다.
- 시작은 적게, 필요하면 나누는 쪽입니다. 합치는 것보다 나누는 게 쉽습니다.
- 핸들은 주소가 됩니다. 나중에 바꾸면 공유해둔 링크가 깨지니 임시 이름을 피하라고 하세요.

스레드

도구 호출이 대화에 보입니다

- 무엇을 호출했고 무엇이 돌아왔는지가 함께 표시됩니다
- 답에 근거가 생기면 검증할 수 있습니다
- 주제가 바뀌거나 답이 이상해지면 새 스레드로
- 같은 요청을 반복하고 있다면 에이전트로 만들 신호

스레드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어 팀원이 볼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를 넣지 마세요.

스레드

- 여기서 실제 화면을 띄워 도구 호출 표시를 보여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.
- 일 하나에 대화 하나입니다. 하나의 스레드에 여러 주제를 넣으면 뒤로 갈수록 답이 나빠집니다.

목록이 아니라 일감입니다

01

내 차례

나를 기다립니다 — 승인 · 질문 · 멘션. 이 화면의 존재 이유

02

진행 중

에이전트가 돌고 있습니다. 기다리면 됩니다

03

미처리

아무도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. 누가 볼지 정하세요

04

완료

끝났습니다. 확인만

사람이 이 화면에 와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— “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?” 최신순 목록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.

네 상태

- 상태는 손으로 바꾸는 값이 아닙니다. 대화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로 정해집니다.
- “완료로 바꾸는 버튼이 어디 있나요”가 반드시 나옵니다 — 치워 두고 싶은 것은 보관입니다.
- 기본 탭이 “미처리”인 이유도 같습니다. 전체가 기본이면 끝난 대화가 화면을 덮습니다.
- 카드마다 출처(멤버·위젯·API·이메일)가 붙습니다. 채널을 연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게 결정적입니다.

카드에서

보관 · 고정 · 읽음은 각각 다릅니다

동작

고정
맨 위에 붙임

보관
치워 둠

읽음
표시만

범위와 쓰임

고정
✓ 며칠 걸리는 일에

보관
✓ 워크스페이스 전체에 적용 — 남이 볼 대화는 보관하지 마세요

읽음
✓ 개인의 것 — 내가 바뀌도 팀원 화면은 안 바뀝니다

보관은 삭제가 아닙니다. 보관함 탭에 그대로 있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.

보관 · 고정 · 읽음

- 보관을 삭제로 오해해 안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. 실습에서 한 번 해보게 하면 그 뒤로 편하게 씁니다.
- 읽음은 개인, 보관은 공용 — 이 비대칭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.

실습 · 20분

업무 보드를 하루 돌려보기

1

세 개를 한꺼번에

하나씩 끝내지 않습니다.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게 핵심

2

네 상태 만들기

진행 중 · 답변 옴 · 내 차례 · 보관

3

보관 확인

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

“답변 옴”과 “내 차례”는 다릅니다. 이 구분을 모르면 보드를 알림 목록처럼 쓰게 되고, 그러면 안 쓰게 됩니다.

실습 진행

- 연습용 질문 말고 실제로 오늘 해야 하는 일 세 개를 넣게 하세요.
- 보관을 삭제로 오해해 안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. 한 번 해보게 하면 그 뒤로 편하게 씁니다.
- 세 개를 동시에 돌려두고 그 사이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이 실습의 목적입니다.

정리

가져갈 네 문장

- 1 워크스페이스는 경계입니다. 정보 → 도구 → 비용 순으로 나누세요
- 2 일 하나에 스레드 하나. 주제가 바뀌면 새로 여세요
- 3 도구 호출이 대화에 보입니다 — 그래서 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
- 4 보드의 상태는 손으로 바꾸는 값이 아닙니다. 치우고 싶으면 보관입니다

정리

- 다음 회차는 계정을 만들고 첫 대화를 해봅니다.
- 다음 회차 전까지 우리 팀 워크스페이스를 몇 개로 할지 생각해오라고 하면 2회차가 구체적이 됩니다.